

이로나이 은행가

이로나이 거리와 교차하는 곳에서 니치킨 거리를 바라보면 근대 도시의 역사가 보입니다. 반경 약 500m 범위 내에 오타루를 북쪽의 경제 중심지로 만든 유명 은행들의 건물군이 있으며, 일본 근대 건축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당시 있던 25 개 은행 중 10 개의 은행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그중 일부는 20 세기 초 일본의 일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오타루 최초의 은행과 창고는 미나미오타루 주변에 설립되었지만, 1881 년에 화재로 이 지역이 거의 소실된 후 상업의 중심지는 북쪽의 이로나이 지구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로나이 지구에는 19 세기 후반부터 20 세기 중반에 지어진 은행과 상사가 늘어서 있어 근대 건축의 박물관 같은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일본의 당시 은행은 부, 성실성, 안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고전적인 건축 양식을 채용했습니다. 건축가들은 영감을 찾아 유럽과 미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은행 오타루 지점(1912 년)은 다쓰노 긴고(1854 년~1919 년)와 그의 제자인 나가노 우헤이지(1867 년~1937 년)에 의해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장식적인 석축과 탑 등의 바로크 양식의 요소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미쓰이 은행 오타루 지점(1927 년)은 소네 다쓰조(1853 년~1937 년)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더욱 심플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세기 중반, 일본의 에너지 주류가 석탄에서 석유로 이행되면서 오타루는 채정이 악화되어 주요 석탄 출하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많은 은행이 오타루에서 철수하면서 장엄한 건물은 미술관과 기타 시설로 개수될 때까지 오랫동안 이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